

광산구, '또 다른 광주' 미얀마의 봄을 외치다

사진전·오월주먹빵·캠페인 등 미얀마 민주화 연대 지지 앞장

광주 광산구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미얀마 민주화의 '봄'을 열기 위한 연대 협력의 고리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선 현대판 '80년 5월 광주'의 처절한 투쟁을 기억하며 '윤상원의 고향' 광산구의 5월은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로 채워질 예정이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15일 임곡동 천동마을 윤상원 열사 생가에서 '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 시민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선 시민, 청소년 등이 함께 윤상원 열사 생가를 참배하고, 5·18의 역사적 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광산구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한 '미얀마 민주화 지지 광산시민행동'과 연대해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을 지지하고, 군부 쿠데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41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목숨 싸울 것을 호소한 윤상원 열사의 뜻이 깃든 장소에서 '또 다른 광주'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선 미얀마 출신 유학생 마웅 씨가 연대 발언에 나선다.

광주에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탄봉피 집회' 등을 진행해 온 그는 현재 미얀마 상황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미얀마 사진전, 미얀마 민주화 응원 리본 달기 등 참여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또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마을활동가 등은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에 미얀마 민주화 지지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광산구가 5·18 41주년을 맞아 미얀마와의 연대

를 다져나가고 있다.

80년 5월 광주의 상황이 고스란히 재현된 미얀마를 바라보는 광산구의 시선과 대응은 남다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광주 공동체의 연대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삼호 청장의 호소에 광산구 청소년, 외국어주민 명예통장단 등도 나서 미얀마 시민에게 응원을 보냈다.

3월부터 4월까지의 광산구청 1층과 광주송정역에선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Save Myanmar!' 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 사진전을 계기로 광산구 공직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 미얀마 현지에서 싸우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5·18기념재단 등에 전달했다.

광산구 마을기업 본행협동조합도 '오월주먹빵'으로 미얀마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80년 5월 광주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오월주먹빵'에 이달부터 미얀마 열사도 담아 배달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미얀마 민주화 지지 성금으로 후원한다.

5·18 41주년을 기념해 오월 광주정신을 기리는 '2021 광산오월문화제'도 미얀마 '민주화 봄'을 염원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5월 광주에 미얀마와 고려인을 담다'를 주제로 광산구립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합창하는 공연을 할 예정이고, 광산구와 광산문화회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2일에는 중앙아시아 이주 스토리텔링극 '나는 고려인이다' 공연을 개최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미얀마에선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700명 이상이 희생되고, 3000명 이상 구금자, 수 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며 "80년 5월 현대판이 현재 미얀마 상황이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시대의 들불' 윤상원 열사의 삶, 작품으로...



광산구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 전 27일~6월13일 ACC 문화창조원

'시대의 들불' 윤상원 열사의 삶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되살아나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광주 광산구는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B3층)에서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을 주제로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선 수묵화 16점,

목판 12점 등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작품을 선보인다.

광산구는 윤상원 열사를 5.18 상징 인물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 왔다. 2019년부터는 열사의 살아온 세계,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일대기 그림 제작을 추진했다.

작품 제작은 맑은 하성흙 화백은 수묵화 기법을 통해 윤상원 열사의 유년기와 들불야학 시절, 5.18 시민군 대변인 활동, 도청 사수, 산화까지의 이야기를 120호(192×134cm) 사이즈

의 대작 12점에 담아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 결과물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윤상원 열사가 산화한 5월 27일, 최후 항전의 장소였던 옛 전남도청에 조성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전시를 여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전시는 6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윤상원 열사의 일기, 들불야학 교본, 투사회보 등 윤상원 열사의 유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청 곳곳에 '오월정신' 깃들다

공공기관 최초 5·18 시민군 이름 새긴 '윤상원홀' '광산 ON-AIR' 개관 '나는 80년 이후 생이다' 공연

민선 7기 들어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구정에 오월정신을 녹여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구청 7층 대회의실을 '윤상원홀'로 명명한 것이 상징적이다.

주민 중심의 마을 자치를 구현하고, 코로나19, 사상 초유의 정마 등 위기를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극복해 온 광산구의 발자취에는 나눔 연대라는 오월정신이 짙게 배어 있다. 바로 이 뿌리에 '윤상원'이 있다.

지난 11일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윤상원 열사 생가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산구는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윤 열사의 생가 등 광산구의 5·18 역사 현장을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오월 광주의 가치와 정신이 세대의 벽을 허물고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눈길을 끈다.

광산구는 이달 초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 직원과 함께 5·18, 미얀마 민주화운동 상황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며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고,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대 의지를 다졌다.

지난 6일엔 광산구 80년생 공직자들이 감사의 꽃다발을 준비해 김삼호 청장과 함께 오월어머니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외함께 광산문화예술회관에 조성된 온라인 생중계 스튜디오 '광산 ON-AIR, 행복 오네오' 개관을 기념해선 '나는 80년 이후 생이다'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 청년공연팀의 오월 관련 민중가요 및 창작곡 공연을 활용, 18일부터 27일까지 매

일 오후 5시18분에 광산구와 광산문화회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

광산구는 80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공직자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5·18이 과거의 역사로만 머물지 않도록 광산구 공직자들부터 5·18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민 500여명 대상 무료 면역력 측정서비스

광주 광산구가 시민면역력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료 면역력 측정서비스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광산구는 지난 3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도 시민면역력 측정서비스(NK세포활성도 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1단계로 지난달부터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면역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면역력 측정서비스는 '자연살해세포'로 불리는 몸 속 NK세포활성도를 검사해 개인 면역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량의 혈액(1cc) 검사만으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160여 명

이 검사를 받았다. 간단한 검사로 자신의 면역력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맞춤 처방까지 받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광산구는 5월부터 2단계로 일반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한 확진자, 자가격리자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광산구보건소 건강클리닉(062-960-3960)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필수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사업장 단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최근 '#Save Myanmar!' 사진전이 열린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 앞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연대하는 뜻으로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